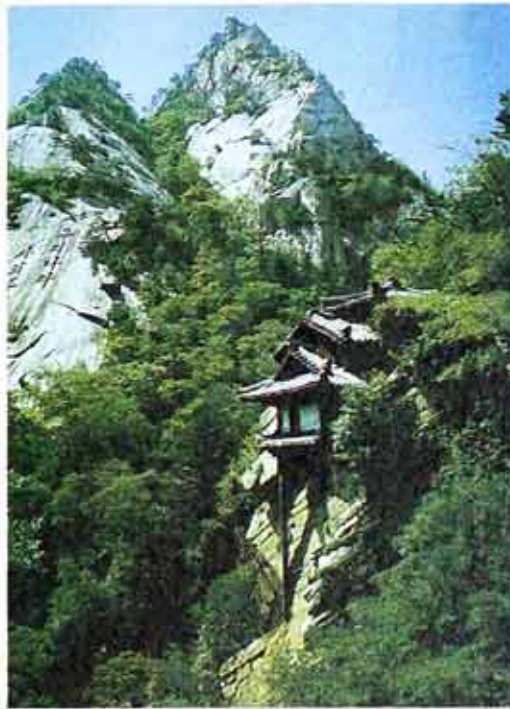




◇금강산에 남아있는 4개 사찰중 대표적 도량 표훈사 경내. 저 법당에서 북동쪽으로 함께 예물을 모실 날이 기다려진다.



◇꽤이제는 절벽에 재비집처럼 지어진 보덕암.



◇정양사 석등.



◇홀로 유점사 터를 지키고 있는 범종.

## 금강산 골마다 절 '아름다운 불국토'

# “올가을 참배길 열려라”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과단 반세기 내내 불러 온 이 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온 나라가 금강산 유람이라는 ‘꿈 아닌 꿈’에 가슴 설레고 있다.

아, 금강산. 이미 산으로서의 이름보다는 분단의 아픔을 허무는 열원의 상징으로 각인된 그 절경이 누령소의 발걸음 같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최창 법타)가 18일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1차로 신계사 복원 계획을 밝힌데 이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에 상당한 의견집진을 이뤄 금강산 관광이 성큼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강산은 강원도 회양·홍천·고성·인제 4군에 걸쳐 있다. 기암괴석과 기묘모양 봉우리들이 수없이 솟아 있어 1만2천봉으로 일컬어진다. 최고봉인 비로봉(1638m)을 중심으로한 산역의 넓이가 5백30km에 이른다.

금강산은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라고 일컫는 곳이다. 사람이 들어왔던 불교의 요람이었다. 오히려 신계가 하나의 웅장한 화염도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불교유적을 품고 많은 고승들을 배출해 냈다. 6·25 직전까지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등 4대 사찰을 중심으로 108개 사찰과 암자가 자리잡고 있었다. 또 탑·석등·마애불 등 많은 불교문화재가 신재해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 대부분이 불타 없어지고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만이 남아 있다. 그 밖에도 금강산 안내도에서는 칠보암, 불지암, 소공암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 삼불암, 묘길상 등 자연로운 마애불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표훈사는 백화암터를 지나 개울을 따라 올라 함영교(涵影橋)를 지나지마자 만나게 되

는 금강산 4대 절 중의 하나이다. 표훈사는 신라 문무왕 10년 표훈조사가 창건한 고찰로, 6개의 전각과 1개의 누각을 비롯해 4~5동의 부속건물을 거느리고 있다. 표훈사는 일부가 소실된 채 남아있다.

표훈사 서쪽, 아름드리 전나무, 잣나무 등이 우거진 속으로 머무, 대개 덩굴이 엉켜어 한낮에도 캄캄한 산길을 1km 정도 오르면 정남향 쪽으로 정양사에 이른다. 정양사 역시 표훈사와 더불어 1천3백여년전에 창건했다. 현대의 건물은 조선 후기인 1791년에 고쳐

지은 것이다. 잘 보관 약사전은 돌보름 쓰지 않은 팔각당인데, 지붕 꼭대기 화강암을 연꽃모양으로 다듬어 올린 것이 이채롭다. 팔각당에는 한결이 넘는 석불약사가 안치돼 있고, 반아전에는 (대방아경)이 소장돼 있다. 그 앞 마당에는 그 구조의 정교함과 고색창연함으로 산중 명물로 꼽히는 신라말기의 작품인 2층 기암(基臺), 3층 석탑, 석등이 서 있다.

보덕암은 분설담 오른쪽 법기봉 중턱에 재비집처럼 걸려있는 3층의 암자다. 최초의 건물은 고구려시대(AD 627년)에 세워졌고, 지

은 것이다. 잘 보관 약사전은 돌보름 쓰지 않은 팔각당인데, 지붕 꼭대기 화강암을 연꽃모양으로 다듬어 올린 것이 이채롭다. 팔각당에는 한결이 넘는 석불약사가 안치돼 있고, 반아전에는 (대방아경)이 소장돼 있다. 그 앞 마당에는 그 구조의 정교함과 고색창연함으로 산중 명물로 꼽히는 신라말기의 작품인 2층 기암(基臺), 3층 석탑, 석등이 서 있다.

보덕암은 분설담 오른쪽 법기봉 중턱에 재비집처럼 걸려있는 3층의 암자다. 최초의 건물은 고구려시대(AD 627년)에 세워졌고, 지

은 것이다. 잘 보관 약사전은 돌보름 쓰지 않은 팔각당인데, 지붕 꼭대기 화강암을 연꽃모양으로 다듬어 올린 것이 이채롭다. 팔각당에는 한결이 넘는 석불약사가 안치돼 있고, 반아전에는 (대방아경)이 소장돼 있다. 그 앞 마당에는 그 구조의 정교함과 고색창연함으로 산중 명물로 꼽히는 신라말기의 작품인 2층 기암(基臺), 3층 석탑, 석등이 서 있다.



위치하고 있는 묘길상은 귀의 길이지만해도 1.5m에 이르고, 손의 길이가 3m, 발의 길이가 3m에 이르는 북한에서 제일 큰 마애불로 경탄의 함성을 지어내게 한다. 탐군대 가는 길 오른쪽으로 십리에 걸쳐 기묘모양 돌덩이 해아릴 수 없이 늘어선 있는 가운데 마치 큰 옥수수 이삭을 세워 놓은 듯한 다보탑 또한 대자연의 장엄함과 위대함에 숙연하게 한다.

금강산 중 최대 사찰이었다는 유점사터에는 범종만 남아 있다. 장안사도 현재는 폐허가 되어 ‘장안사터’라 쓰인 못만이 외로이 해와 달을 반기고 있을 뿐이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마하연도 소실돼 부속건물인 절성각과 부근 8각 정자인 연화대가 남아 있다.

수많은 고승들이 최고의 수행처로 돌아 찾아들었던 금강산.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은 “계곡마다 스님 법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채 무정설법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금강산을 향하는 불심, 그것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뛰어 넘어 깨달음의 대상으로 달려가는 불자들의 기쁨이다. 올 가을, 무정설법의 법당으로 향하는 행로가 활짝 열려 마침내 나라복이 하나되는 환희의 날이 오길 기대한다.

도림선 기자(gsd@buddhafia.com)

## 표훈사·보덕암·유점사터·장안사터 시공초월 무정설법하고 있다



◇남한불자들의 참배를 기다리듯 자태로운 미소로 서 있는 삼불암 마애부처님.

금의 것은 170에 재건된 것이다. 20m가 넘는 아슬아슬한 절벽에 7.3m구리 기둥 하나로 받쳐져 있어 바람이 불거나 4~5명이 마루 바닥을 걸으면 절이 바짝거리며 흔들리지만 3백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은 기이한 곳이다. 멀리, 만폭동 계곡 아래에서 바라보면 오르면, 보덕암은 무엇인가 사람을 안심시켜 주는 듯한 감을 주며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절이다.

석가불 기둥에 자리잡은 명연을 구경하고 장안사터에서 약 2km떨어진 삼불암교를 지나면 길 양쪽에 집채같은 바위 두개가 마주 서 있다. 이것이 삼불암이다. 나옹화상의 원불(願佛)로서 조각되었는데, 오른쪽이 미륵불, 가운데가 석가불, 왼쪽이 아미타불이다. 그 밖에도 강원도 금강군 내장리 사신계에

## 신계사복원 어떻게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 성초, 김동연)는 신계사 복원불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신계사는 어떤 절인가, 불자들은 물론 금강산을 그리워 하는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원추진위원회는 오는 8~9월 대표단과 기술진을 현지에서 파견하고 늦어도 내년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등 금강산 3개 사찰에 대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전 문화재연구소장, 김도현 전 문화부 차관, 단행 인간문화재 석경스님 등 2백5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가 신계사를 1차 복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건평 1백90평으로 규모가 작고 외 금강 초입의 풍지에 위치해 자연유전자와 공사가 쉽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북한 측으로부터 신계사 설계도를 받았으며, 도림선을 현장에 채취

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건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불철은 신계사 복원을 위해 1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불자들의 성금과 관심있는 기업의 협찬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금강(회장 정성영)과 긴밀한 협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계사 복원규모는 13개 건물 및 기타 부속시설로 모두 190.1평, 세부적으로는 회성전·수승전·대웅전·나한전·극락전·한계루·대문·어실각·절성각·대향각·종각·3층석탑·석탑(2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신계사는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 법흥왕 때인 519년 보문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신계사는 6개의 전각과 1개의 누각을 비롯하여 기타 10여 동의 부속건물이 있었고, 부근에만 5~6개의 암자를 거느렸다. 그러나 지금은 삼층석탑과 석우, 주춧돌 등만이 남아 있을 뿐이나 최근 북한이 유물박물관을 설치해 사지의 보존상태는 좋다고 한다.

도림선 기자



◇복원을 기다리는 신계사터.

## 금강산서 수행한 큰스님들 감회

올 가을부터 금강산을 직접 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는 이들은 고향을 두고 온 신행민만이 아니다.

금강산에서 출가 수행을 했던 많은 고승들 또한 마음의 고향, 금강산 방문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

■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금강산 마하연에서 3년간 용맹정진했던 때가 기억이 난다. 정 조계종 종장 서암스님도 함께 커다란 마하연 선방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수십년을 먼 북녘땅을 바라보다가 이제 드디어 갈 수 있게 된다니 그때 함께 용맹정진하던 수좌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 덕암스님(태고총림 방장): 매년 6월이면 금강산 유점사가 있는 북녘땅쪽을 바라보며 통일의를 그날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곤 했는데



◇비룡스님



◇월하스님



◇덕암스님



◇설산스님



◇경운스님



◇화산스님

너무나 기쁘다. 금강산에서 1년만 살아보면 온 천하의 변화무쌍한 진리를 한 눈에 볼수 있다는 은사 법산스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설산스님(정토사 주지): 건봉사의 수좌들을 모아놓고, 결연한 의지로 독립을 외치던 만해스님의 강연이 지금도 뇌리에 역력히 남아있다. 금강산 건봉사에 올라 출가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보고 싶고, 그들

안 내가 직접 지은 시 ‘금강산’을 노래로 만들어 올려드리게 하고 싶다.

■ 경운스님(대각사 선덕):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에 마하연으로, 장안사로 두루 다니다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쫓겨 남한으로 내려 온 후 단 한 번도 내 고향 신계사를 잊어본 적이 없다. 신문기사에 나온 일제시대 찍은 신계사 사진을 오려서 벽에 걸어 놓고, 이제 낡고 병들어 기려도 예전같지

않지만 신계사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 월하스님(통도사 방장),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지홍스님(광양 운암사 조실), 고승스님(과계사 조실), 화산스님(대구 보광원 조실), 범룡스님(동화사 비로암 조실), 범흥스님(원효종 종정) 등 금강산에서 수행의 기초를 닦았던 노스님들은 늘 금강산 수행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사자스님들이 전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fia.com)